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제 4장: 복음의 진전, 제2부, 빌립보서 1:18b -26,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매튜 S. 하몬 박사가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이번 강해는 복음의 진전, 2부,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강좌 네 번째 강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복음의 진전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상반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이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 살펴보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후반부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지금처럼 늘 담대히 내 몸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입니다.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한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계속 함께할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복음 전파 과정 2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여덟 구절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초점이 그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서 미래로 옮겨갑니다.

바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다시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것을 압니다.” 이 단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어 원문은 ‘소테리아(Soteria)’인데,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는 모두 ‘구원’으로 번역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감옥에서 의 해방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이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구원, 즉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에도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단어가 영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그의 일반적인 패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항상 영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로 동족어 동사인 ‘아무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 동사는 언제나 영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사실, 바울이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다른 그리스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28절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읽는 동안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이나 항상이나 온전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 있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대한다’는 표현은 종말론적 현실, 미래, 최후 심판 또는 만물의 최종 보존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희망이라는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용어가 종말론적 현실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부끄러움을 ‘아, 나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창피해’라는 생각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론적인 언어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 또는 최종적 구원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바울이 욥기 13장 16절의 표현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구원이 될 것이다”라는 구절은 욥기 13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그 다섯 단어입니다.

욥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죄를 입증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의도적으로 욥의 표현을 차용한 것이라면, 그리고 욥기에서 이 표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면, 단어

사용과 욕기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둔 것은 단순히 감금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구원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면, “나는 당신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마지막 날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라고 충실하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키는 길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준 두 가지 요소 또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라고 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이 걸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시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첫 번째 수단, 즉 인내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항목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성령의 도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신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어 원문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어 원문에서 바울은 하나의 정관사를 사용하여 두 명사를 모두 지칭합니다. 즉, ‘그것’이라는 단어를 기도와 도움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어에서는 두 대상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본질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별되지만, 함께 협력합니다. 그들은 동반자 관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주심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시련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진 확신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내 몸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계속 신뢰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어떤 구절에서든 도움이 되는 연결어 중 하나가 나옵니다. 20절 끝에서 “생명으로든지 사망으로든지”라고 말한 후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근거는 21절에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데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구절을 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그리스어 원문을 딱딱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고 강조적인 거죠.

이 표현 방식은 거의 속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빌립보서 3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해서 본론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네 가지 통찰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구절들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적인 이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이며, 역동적이고, 친밀한 삶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관계적인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말할 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높은 목표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이득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만약 그분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목표라면,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목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 자체로는 좋은 것들조차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수치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부활의 능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이 세상에서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강의 후반부에 살펴볼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붙잡으셨고, 이는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하였으니, 이제 그는 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그의 말을 이해하는 데 여러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이라"라고 말한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죽음이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삶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다음 네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면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바울이 "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죽으면 얻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으로 그 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유익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초점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일종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여기서 내려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는 다시 “나는 이 둘 사이에서 곤궁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딜레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복음의 진전에 있다는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만약 내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면, 나는 사역을 계속할 것이고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내가 처형된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은 이 상황을 승패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묘사합니다. 만약 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좋겠죠. 사역도 더 활발해지고 복음도 전파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자신의 딜레마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자신이 실제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께서 제게 선택권을 위임하셨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살지 죽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선호도, 원하는 것, 심지어 기도할 때 바라는 결과에 관해 고민하는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승패의 문제로 보는 대신, 승리 또는 더 큰 승리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딜레마에 압도당하는 대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실제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가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유익이 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남아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바울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 그가 편지 후반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촉구할 내용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하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와 안락함보다 우선시하는, 자기희생적인 마음가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타인 중심적인 태도였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빌립보 교인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목표를 세웁니다.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의 성장과 기쁨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때때로 영어 번역본은 이러한 연결 고리들을 제대로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장 12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구절의 시작 부분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표현으로, 25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라고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은 일종의 포괄법이나 괄호 효과와 같은 건데, 저자가 단락이나 구절의 시작 부분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를 끝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그 부분을 독립적인 문학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는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보다는 우리를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충분함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너무 양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더 많은 양, 더 많은 액체가 담긴 유리잔이나 용기처럼 더 많이 부어야 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에게 일어나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1장 26절을 보면, 그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므로 너희가 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구상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과 재회할 때 기쁨에 찬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다시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이 모든 일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나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장 18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복음의 진전이 우리의 미래 계획과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 후반부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1장 전체, 12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들의 핵심 요지는 복음의 진전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전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평가하는 렌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바울의 현재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복음이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둘째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용기를 얻을 때 복음이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복음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때 복음은 더욱 확장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묵상하며 앞으로 무엇이 올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섬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연결 고리를 활용한 적용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거나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과 상황을 주관하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은 호숫가나 해변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안락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로마 병사에게 쇠사슬로 묶인 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심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제는 이 세상에서 바울의 생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진실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건 쉽겠지"라고 치부하기 전에,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주관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기억에 남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 감동이 쉽게 반감되곤 합니다. 네,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이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이다"라는 믿음이 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셋째, 욕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삶으로든 죽음으로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얼마나 염려하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였을까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목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접했을 때, 바울이 그러한 현실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리스도도 위대하시구나"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가 바라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삶의 특정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그 상황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지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내어 "주님,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특히 힘들거나 어려운 특정한 상황을 생각해 보고, "주님, 이 특정한 상황을 어떻게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어떻게 논증을 전개하고 편지 본문을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튜 S. 하몬 박사가 빌립보서에 대한 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시간, 복음의 진전, 2부,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26절입니다.